

		반 박 자 료		당신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발표일시	2008. 8. 1(금) / 총3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멘트와 함께
담당 부서	기술팀, 기획팀	담 당 자	· 기술팀 과장 오대성, 기획팀 한찬수 · ☎ (02)538-8230, 8235 E-Mail speedfire@cement.or.kr	

다음 블로그 『프랑스와 한국 시멘트 유해성 비교』에 대한 반박

최병성씨가 다음 블로그에 게재한 『프랑스와 한국 시멘트 유해성 비교』(2008. 8. 1字중)에 대해 대부분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시멘트업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국산 시멘트가 프랑스 시멘트에 비해 중금속 함량이 수십배가 높아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중금속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함량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녹아 나오는 것인 용출 여부입니다. 중금속이 외부로 용출이 되지 않으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 손가락의 경우 최병성씨가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크롬이 수십만ppm이나 함유되어 있지만 음식을 먹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난감에도 상당한 양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하는 것은 용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병성씨는 단순히 중금속의 함량 수치만을 비교하여 프랑스산 시멘트보다 국내 시멘트가 중금속이 몇십배나 높으므로 유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함량 그 자체만으로는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2. 국내 생산되는 시멘트 100%가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최병성씨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 프랑스에서는 마치 쓰레기(정확히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인 순환자원이며 ‘쓰레기’라는 표현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최병성씨만의 표현입니다.)를 시멘트소성로에서 안 쓰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병성씨의 지금까지 보여왔던 알팍한 수법 중의 하나이며 프랑스에서도 역시 국내와 똑같이 시멘트 제조시 최병성씨가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순환자원을 사용합니다.

또한 최병성씨는 마치 시멘트가 100% 쓰레기로만 만들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반제품인 크링카의 원료 구성비율은 석회석등 천연원료와 부산물이 약 97%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가 순환자원으로 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성씨는 시멘트가 마치 100% 쓰레기로만 만들어진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하며 네티즌 등 일반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멘트 속에 있는 중금속의 경우 100% 천연광물로만 사용하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천연광물 자체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시멘트 중의 중금속 용출 결과가 먹는물 기준의 160배다라는 주장에 대해

엉뚱한 비교 기준을 적용하여 유해성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중금속 용출 결과와 먹는 물 기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은 시험체를 물속에 담가서 일정기간 동안 물을 계속 교체하는 등 중금속을 충분히 우려내고 난 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상태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멘트 중금속 용출은 시험체를 약산성 용매를 사용하여 검출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시멘트 용출결과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시험 방법과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A라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B방법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시멘트를 먹는 물 기준과 직접 비교 할려면, 먹는 물 기준대로 시멘트를 전처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엉뚱한 기준을 들어 국내산 시멘트가 엄청나게 유해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목) 영월군에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환경영향조사는 한양대와 전주대가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한양대에서 수행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중 모든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내였으며 토양 중 중금속 검출결과 역시 기준치 이내였으며 악취물질의 조사결과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주대에서 수행한 순환자원의 시멘트 소성로 사용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중금속 농도(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바륨, 수은, 비소, 아연)가 소각로 기준치에 비해서 낮았으며 원료물질, 연료물질, 크링카, 첨가제에 대한 폐기물 기준 용출분석 역시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병성씨가 주장하는 자료는 전주대의 1차 실험결과였고 2차 실험을 거친 최종적인 결과발표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병성씨가 주장한 1차실험 결과에서는 중금속 전체 함량보다 물에 녹아 나오는 용출량이 더 많거나, 석회석이나 유연탄과 같은 천연광물에서도 지정폐기물 기준 이상 중금속이 용출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진이 지정한 분석소, 공인시험기관에서 2단계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 분석결과>

	종류	As	Cd	Cr	Cr6+	Cu	Hg	Pb
A사	클링커 1회	ND	ND	0.433	0.499	ND	ND	0.016

B사	클링커	2회	ND	ND	0.379	0.438	ND	ND	0.022
		3회	ND	ND	0.497	0.623	ND	ND	0.057
		4회	ND	ND	0.586	0.52	ND	ND	0.051
	클링커	1회	ND	ND	ND	0.30	ND	ND	ND
		2회	ND	ND	ND	0.415	ND	ND	0.016
		3회	ND	ND	ND	0.441	ND	ND	0.014
		4회	ND	ND	ND	0.344	ND	ND	0.008

따라서 지난 주민설명회에도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성씨는 이러한 최종 결과는 무시한채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인용하여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최병성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인용하여 네티즌 및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최병성씨가 지금까지 제기해 온 시멘트의 유해성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는 환경운동가라는 자신의 경력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보다는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는 최병성씨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는 향후에도 이러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네티즌 및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